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업무지침·매뉴얼 마련

전북자치도교육청, 보조금 지원·학사관리 등 8개 분야 내용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학평시설은 학업중단 학생 및 근로청소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등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지정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고,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사립학교와 달리 학평시설은 관련법령 해석 위주의 업무편람 외

에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그동안 학평시설 운영과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평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그 일환으로 학평시설 분야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하게 된 것. 매뉴얼에는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교무·학사관리 △인사·복무 △재무·회계 △계약관리 △시설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각 분야별로 주요내용, 점검사항, 지

도사례, 관련 서식 및 예시문 등으로 구성해 학평시설 업무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이 마련돼 학평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효율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소의계층이 만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평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전주 2곳을 비롯해 군산, 정읍, 임실에 각 1곳씩 총 5개의 학평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이 추진한 '2024년 겨울 독서교실'.

(사진=전주교육문화회관 제공)

‘책 계단으로 성장하는 도서관 학교’

전주교육문화회관, '2024 겨울 독서교실' 성료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지난 15~28일 10일간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책 계단으로 성장하는 도서관 학교'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주요교과(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를 책과 연계해 10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풀이한 이론 및 실습 수업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사문제 분석·토론으로 세상 배우기 △연산 보드게임으로 단계를 수학미션 계기 △다양한 게임과 북아트로 한국어 배우기 △에어로켓 실습으로 과학적 사고력 키우기 등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총 40명에게 수료장을 수여했다. 특히 각 반에서 우수한 태도로 참여한 학생 6명에게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상, 전주교

육문화회관장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등을 수여했다. 이번 독서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독서교실에서 과목별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10가지 주제의 수업을 들으며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이라며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며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이 나에게 마지막 독서교실이지만 중학생이 돼서도 참여할 수 있는 독서교실이 있다면 나중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독서교실에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독서교실을 통해 많은 학생이 책과 함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역사 문화예술교육 강화”

6개 주요정책 등 수립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금희·사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정읍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의 6개 주요 정책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최금희 교육장은 6개 주요정책과 12개 정책과제, 48개 세부과제로 정읍교육계획을 수립하고, 757억의 본예산을 확보하여 역사와 전통을 지향하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고상답게 올해는 학력신장과 더불어 역사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개 주요 정책은 △신나는 가르침 샘솟는 배움 △소외와 차별없는 맞춤형 책임교육 △안전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학교 △소통하고 참여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활기찬 정읍교육 △평화와 공존의 세계 시민교육으로 학생을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세계시민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중국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복지회관 도서관 증축, 정읍제일고 기숙사 신축, 칠보초 씨름연습장 신축이 진행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정일중 통학버스도 3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정은=김대환 기자



디지털 선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이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지난해 9개 학교에서 올해 51개 학교로 확대
이리모현초서 선도학교 관리자·리더그룹 대상 사업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지난해 9개교에서 올해 51개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6일 이리모현초등학교에서 선도학교 관리자 및 리더그룹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전에 다양한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수업혁신과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학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남성중학교 유미

교사가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유 교사는 1기 터치교사로 활동했다. 터치교사란 디지털 기반 교육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교사를 의미한다. 또한 2023년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교사가 2024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선도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4년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필요성 및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마련했다. 오기영 미래교육연구소장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관리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해 강의했다. /장은성 기자

*리더그룹: 교장, 교감, 부장교사, 핵심교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의 비전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며, 학교의 변화를 주도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유아교육계획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행복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 비전 및 4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공사립유치원 교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유아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 인성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전북유아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유아행복한 맞춤형 교육 제공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유아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핵심과제로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미래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며, 4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북형 유보통합 기반 구축에 나선다. 지난 1월 1일자로 유보통합팀을 신설하고, 유보통합 협의체 및 실무팀을 중심으로 원활한 보육업무 이관을 추진중이다. 특히 공·사립 차별없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16만5,000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정책유치원 7개원·다문화교육지원유치원 60개원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미래형 거점유치원을 24개원으로 확대하고, 유·초 연계 이음학기 59개원(59개교) 운영, 소규모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워크숍, 컨설팅 장학, 누리과정 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미래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및 유아 전용 체험장을 확대 조성키로 했다. /장은성 기자

이차전지 특구 기업 인력 수요 연계 공유전공 신설

국립군산대, 중국 탕산해운직업학교 등과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가 그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현장실습과 학업을 병행하는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공유전공' 프로그램이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보신그룹, 탕산해운직업학교와 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공유전공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3학년으로 편입한 유학생들이 절반은 산업 현장에서 실습하고, 절반은 학교에서 수강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2+2 형식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장은성 기자

23일 3월4일 일정으로 출국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장호 총장은 25일 야오이춘(姚繼坤) 보신그룹 회장, 핑궈성(丁國聲) 탕산해운직업대학교 총장과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형 공유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기업이 만족하는 교류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세부 사항은 △양교가 공동으로 승인한 영역에서 교직원 교류, △장단기 학생교류협력, △공통 관심사와 관련된 공동 연구, △학점 인정 및 학부편입학제 추진, △양교 한국어 양성센터 공동 설립, △국제화소회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